

## 이상일 회장[(주)정도설비대표], 2015 한국산업대상서 기술혁신산업대상 수상




이상일 (주)정도설비 대표(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사진 오른쪽)는 지난 5월 7일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2015 한국산업대상' 시상식서 기술혁신산업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일 (주)정도설비 대표(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가 지난 5월 7일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2015 한국산업대상' 시상식서 기술혁신산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산업대상은 동아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청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협력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 및 산업융합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이상일 대표는 “기계설비의 토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방안 등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기계설비건설산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술혁신대상을 받게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정도설비는 건

축기계설비에 대한 토탈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기계설비공사를 주력으로 한 설계, TAB,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고 에너지절약을 비롯한 품질, 안전, 원가의 최적화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정도설비는 공사 이전 단계에서 또 다른 설계자의 시각으로 충분한 도면검토를 통해 설계도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등 최종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ISO 9001 및 OSHAS 18001과 KOSHA 18001 인증업체로서 자체 품질기준표에 따라 기술임원이 시공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공 전 현장소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제3자의 눈으로 시공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A/S 담당자를 배치하여 고객으로부터 상시 상담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자 접수 시 즉시 조치체계도 갖추고 있다. 안전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진단 및 안전지도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

정도설비는 2006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에도 활발히 진출하여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취업 청년(대졸) 6명을 선발하여 두원공대에 위탁한 후 6개월간 교육을 이수시킨 후 해외 현장에 배치하는 등 국가 중점사업인 청년취업을 향상 및 해외 건설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정풍개발의 사우디 현지 법인인 정풍사우디법인은 지난 5월 5일 사우디 알코바에서 사우디의 인디테크 엔지니어링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해외공사 교두보 마련 위한 MOU 체결

### (주)정풍개발, 추종자(Fast Follower) 아닌 선도자(First Mover) 추구

(주)정풍개발(대표 김성언)은 지난 5월 5일 사우디 알코바에서 Industrial and Technology Innovation(InnDTech) 엔지니어링사와 정풍사우디(Jeongpoong)법인 간의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뿐만 아니라, GCC(걸프협력회의)국가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국가를 포함 총 29개국에서 발주되는 사우디전력청(SEC)의 복합발전 프로젝트

들을 비롯하여 그 외 다른 모든 프로젝트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기로 했다. 또한, InnDTech는 PM(프로젝트 관리), E(설계), P(구매조달)를, 정풍사우디 법인은 CM(시공 관리), C(시공)를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디테크는 향후 발주되는 SEC프로젝트를 위주로 영업수주활동을 펼치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정풍은 전체적인 시공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BOP 중 기계, 전기를 주로 담당하기로 했다.

해외공사에서 대기업의 저가 수주는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

라 정풍사우디 현지 법인은 새로운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발주의 원청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현지업체이며 엔지니어링회사인 인디테크(InnDTech)와 컨소시엄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성언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수급사업자로서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종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가 되기 위해 전 임직원과 함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정풍개발은 기계설비공사를 주축으로 강구조물공사, 가스시설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토목&건축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를 기반으로 연매출 800억원 대

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국가기간사업의 주력인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정유공장 건설 등의 시공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찌기 해외로 눈길을 돌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전문건설업계 최초로 필리핀 말라야화력발전소 참여를 비롯하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화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등 대기업들과 동반진출 하였다. 최근에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꾸라이야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안부의 화력발전소와 투라이프의 비료공장 프로젝트에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등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노사간에 공유가치 창출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사진 우측 김성언 대표, 좌측 사우디 인디테크사 Saad Al-Shahrani 대표)



세일이엔에스(주)는 지난 5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경남 통영에서 '창립 4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가운데 심기석 대표)

##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원년” 다짐 - 세일이엔에스(주) 창립 45주년 기념행사 -

세일이엔에스(주)(대표 심기석)는 지난 5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경남 통영에서 창립 4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총무공 이순신 장군 위패가 모셔진 통영 총렬사 및 전적지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전략가인 총무공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깊은 성찰과 더불어 전 임직원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1일 거행된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안전관리 우수현장에 대한 포상이 있었으며 부상으로 각각 골드바가 수여되었다

심기석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45년간 일구었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 기업을 위한 비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자”며 “세일의 기업모토인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건물이 숨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이란 것을 늘 명심하자”고 강조했다.

세일이엔에스는 1970년 세일공업사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윤리경영을 기업 최고 가치로 삼고 축적된 기술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등 안정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1997년 ISO 9001 인증, 2007년 ISO 14001 인증과 더불어 2009년 KOSHA 18001 인증을 취득, 국제 규격의 체계화된 품질과 환경, 안전관리 등 시공분야 전반에 걸쳐 탁월한 기술력과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내 유명성악가 배출의 요람인 세일음악문화재단과 예음음악무대에 후원활동을 하는 등 기업의 메세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도 다하고 있다. 